

금융허브 추진실적 및 2006년 추진계획

2005. 12. 7

재정경제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서울특별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투자공사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국제협력단	

- 목 차 -

I. 추진 경위	1
II. 금융허브 목표 및 추진전략	2
III. 그간의 추진실적 및 평가	4
IV. 06년 금융허브 추진계획	8
1. 금융인프라의 개선	9
2. 선도금융시장의 효율적 발전기반 구축	14
3. 역내 리더쉽의 구축	18
4. 금융 관련 경영·생활환경 개선	22
5.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25
6. 금융허브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공감대 확산	26

< 별 첨 > 기관별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I. 추진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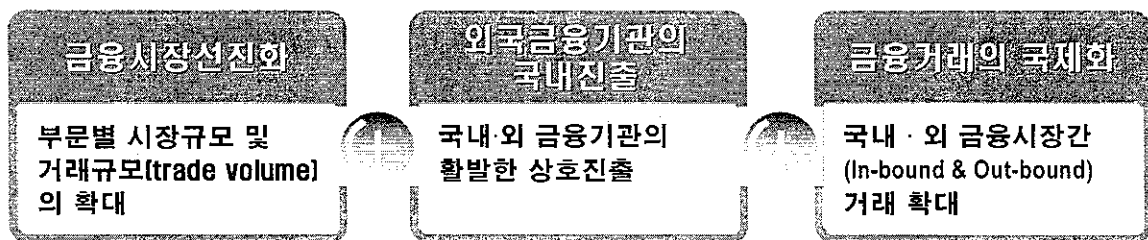
- '03.12월 대통령님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금융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확정
 - 금융허브정책을 통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금융 시장의 신뢰를 제고
- '05.6월 대통령님 주재 금융허브회의에서 금융허브정책의 진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 추진전략을 재정비
 -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기존 로드맵의 일정을 단축
 - * '07년까지 금융허브 기반 구축, 2010년에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 금융허브” 완성, 2015년까지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발전
 -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31개 추진과제를 신규로 발굴·추가(49개 세부추진과제 → 80개 세부추진과제)
 - * 매 분기별로 80개 세부추진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
- 동 금융허브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민관합동의 금융허브 추진체계를 구성
 - * 대통령님 지시('05.6.3일): 금융허브 구축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의 금융허브 추진체계 구성
 - 금융허브추진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두고, 동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위원장: 재경부 차관보)와 6개 분야별 분과위원회(위원장: 민간인)를 구성
 - 분과위원회별 논의 및 제1차 실무위원회('05.10.27)에서 금융허브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
 - * 금융허브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 별도 보고안건 참조

Ⅱ. 금융허브 목표 및 추진전략('05. 6. 3일 금융허브 회의시 확정)

가. 금융허브 추진목표

- 금융허브 구현시 다수의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모여 각종 금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시장에서의 지역 리더쉽을 확고히 구축

*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가 심화되고 In-bound & Out-bound 등 금융거래의 국제화가 활성화



나. 금융허브 추진전략

- 확고한 금융 인프라 구축

- 금융활동의 기초가 되는 외환제도, 감독시스템·금융규제를 타 금융허브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개선

- 국내외 시장참여자가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

- 선도 금융시장 및 업종의 발전을 통한 특화된 리더쉽 구축

-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선도금융분야 (자산운용업, 구조조정시장 등)가 부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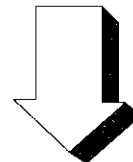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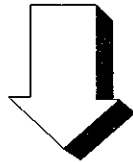
- 후방효과를 통해 외환, 주식, 보험산업 등 금융산업 전반을 견인

- 국제적 Network의 강화

- 국제적 Network의 확충을 통해 다수의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 진출을 유도

금융허브 전략 개념도

국제적 Network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금융기관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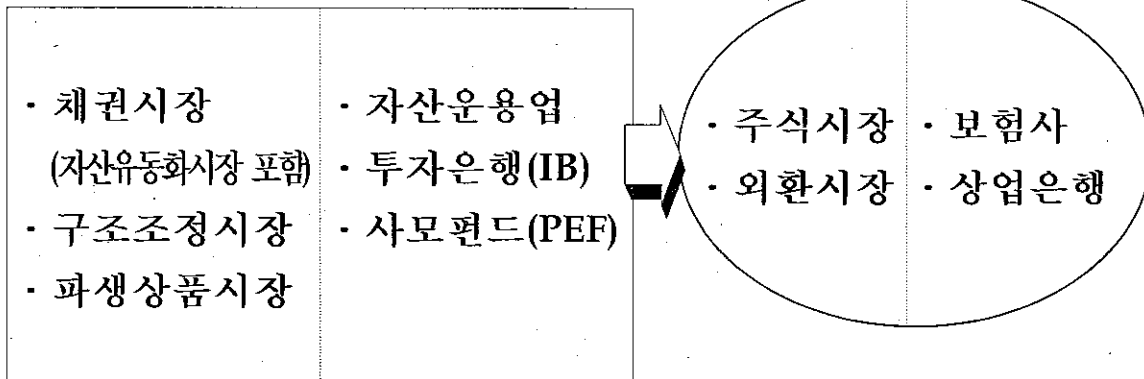


< 선도시장 · 업종 >

- 선택과 집중 -

< 견인시장 · 업종 >

- 후방효과를 통한 확산 -



외환제도
혁신

금융규제
철폐

금융감독
개혁

경영 · 생활
환경 개선

< 금융 인프라 구축 >

Ⅲ. 그간의 추진실적 및 평가

1. 추진실적

□ 금융허브 구현을 위한 80개 세부추진과제('05년까지 완료 과제 : 39개)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05.3/4분기까지 35개의 과제 이행 완료

- 투신사 구조조정 마무리,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퇴직 연금제 도입 등 자산운용업 육성 기반 확충
 - 증권·선물 거래소 통합 등 금융시장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Zero-base 금융규제 개혁의 추진 및 금융감독기관의 서비스 기능 강화 등 규제·감독시스템 혁신
 -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Global Network의 강화 및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 경영·생활환경의 개선에 대해서도 노력

※ '05년 3/4분기 금융허브 세부과제 추진실적 : 별책

□ 나머지 41개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

- 대내외 여건 등을 감안 세부추진과제의 추진일정을 단축하는 한편, 신규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

< 참고 : 80개 세부 추진과제 추진 현황 >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10년*	계
추진과제	21	18	2	11	1	27	80
추진완료	21	14	0	0	-	-	35

* 2015년까지의 계속 과제

2. 평 가

긍정적 측면

- 금융허브 추진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
 - 특히, 금융허브회의(6.3) 이후 외환·증권·금융감독·금융 규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금융허브정책의 모멘텀과 추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제1차 금융허브회의 이후 후속대책 추진현황

6. 3일	금융허브 회의	
6.16일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기존 “유입촉진·유출억제” 중심의 외환 정책기조 완화, 해외투자 활성화 조치와 기업 활동 관련 외환규제 완화 등
6.17일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	파생상품·실물자산 등에 특화하는 전문 자산운용회사의 설립 허용 및 최소 자본금 요건 완화(100억원 → 30억원), 전문 펀드판매 중개회사 제도 도입 등
6.23일	금융허브추진을 위한 감독업무 Process 혁신방안(금감위)	금감원내 외국계 금융회사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
6.29일	자산관리공사법 개정	자산관리공사의 해외부실채권 매입 근거 마련
7. 1일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외화자산의 안정적 수익성 제고 및 자산운용업 활성화 기반 조성
8. 9일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 방안(금감위)	개선과제 269건에 대한 로드맵 제시 (폐지 51, 개선 157, 중장기검토 61)
9. 2일	금융전문가과정 개설	KAIST에 6개월 단기과정의 금융전문가과정을 시범 운영
11.10일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의 기본방향	금융투자회사 설립허용,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주의 전환 등
11.22일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	현행 금융관련 법령 40개, 총 639건 규제에 대한 DB구축 및 로드맵 제시(규제완화 81건, 규제폐지 13건, 중장기검토 3)
11.23일	채권시장·ABS시장 활성화 방안	10년 초과만기 등 장기국채 발행 확대, 외국인의 국내 채권 국제장외거래 허용 등

□ 금융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외국금융기관의 한국진출이
가시화 되는 등 시장발전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

- 기업의 수익성 향상,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의 효과로
주식·외환·자산운용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됨으로써 홍콩·싱가포르 등 기존 허브와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는 추세
- '05.11월말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03년대비 121.9%, 채권
발행 잔액은 37.2%, 외환시장 일일평균거래액은 77.9%
증가하는 등 금융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 시현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식투자 비율 확대 및 적립식
펀드의 활성화 등으로 펀드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단위 : USD억)

	'03년말 (A)	'04년말(B) (B-A/A)	'05.11월말(C) (C-A/A)	홍콩 (04년말)	싱가포르 (04년말)
주식시장 시가총액 (03년 대비 증가율)	2,967	3,953 (33.2%)	6,584 (121.9%)	8,696 <75.7%>	2,168 <303.7%>
채권시장 발행잔액 (03년 대비 증가율)	5,070	6,336 (25.0%)	6,954 (37.2%)	790 <880.3%>	1,191 <583.9%>
외환시장 일일 거래액 (03년 대비 증가율)	122	188 (54.1%)	217 (77.9%)	1,020 <21.3%>	1,250 <17.4%>
자산운용시장 수탁고 (03년 대비 증가율)	1,215	1,784 (46.8%)	1,921 (58.1%)	3,440 <55.8%>	2,740 <70.1%>

* < > 홍콩, 싱가포르 대비 '05.11월말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규모

- KIC 출범과 국내 금융시장의 확대 등에 따라 푸르덴셜
그룹의 아시아 지역본부 진출('06.1 예정) 등 외국금융기
관들의 우리 금융시장의 진출 움직임이 활발

* 최근 외국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진출
의향을 타진 중

아쉬웠던 점

- 금융제도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 졌으나, 아직까지 경영 등 생활환경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제적인 수준에 미흡
 - 법령·규정 등의 영어화, Visa 제도의 개선, 공항의 도심 접근성 제고 등 지속적인 과제발굴을 통하여 경쟁국 수준 이상의 경영·생활 인프라 구축 필요
 - 또한 법령의 해석과 집행 등에 있어서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 금융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금융시장의 국제화 측면에서는 미흡
 -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중이 42.0% 수준이나,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모는 전체 채권 발행액의 0.58% 수준에 불과
 - 외국기업의 국내상장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자산운용사의 해외운용비중이 2.55% 수준으로 국제적 역량 미흡

⇒ 주변 경쟁국들의 금융허브화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의 추진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

- 상하이가 빠르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일본도 국정아젠다로서 금융개혁 프로그램*을 실행중

* 금융개혁 프로그램(Moving toward a Financial Services Nation)의 주요 과제: 투자서비스법(Investment Services Law) 제정, 현 규제에 대한 전면 재점검 및 탈규제화, 금융상품(서비스) 유통경로 다양화, 투자에 유리한 세제 마련, 유가증권의 Paperless화 등

IV. 06년 금융허브 추진계획

< 기본방향 >

- ◆ 금융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함으로써 금융허브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하여 투명하고 개방된 선진형 금융시스템 구축
 - 규제 완화, 외환 자유화, 금융통합법 제정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
 - 국내·외 시장참여자간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제공
- ◆ 국내 금융시장의 활성화 및 국제화를 적극 추진
 -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자산운용업 등 선도금융 분야의 기반 마련
 - 외국금융기관 유치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내 금융기관들의 국제적 역량 제고를 통하여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외진출을 촉진하고 역내 리더쉽을 구축
- ◆ 겸업화·국제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금융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차질 없이 공급
- ◆ 금융허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부문의 주도적 참여를 촉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
 - 민간위원 중심의 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방향과 추진과제를 마련한 후, 실무위원회 및 전체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추진

1. 금융인프라 개선

가. 「Zero-base 금융규제 개혁」

□ 현 황

- 민관합동의 「Zero-base 규제개혁 T/F(총 13개)」를 구성('05.5월)
- 금융관련 법령 40개(총 639건의 규제)를 대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재검토 결과 총 19개 법령, 101건의 개선과제* 발굴
 - * 규제완화 85건(법률 개정 44, 시행령 개정 32, 시행규칙 개정 9)
 - 규제폐지 13건(법률 개정 8, 시행령 개정 3, 시행규칙 개정 2)
 - 중장기 검토 3건(법률 개정 1, 시행령 개정 2)
- 또한, 금융규제 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자체 규제 DB를 개발하여 금융개혁을 상시화

□ 추진계획

- 1단계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각 법령별로 일정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
- 2단계 규제개혁 발굴 작업에 착수
- ※ 특히, PEF와 자산유동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을 중점 개선할 예정
- 또한, 금융규제 DB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선작업을 진행
- 관련 부처·전문가 등에게 공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DB의 활용도를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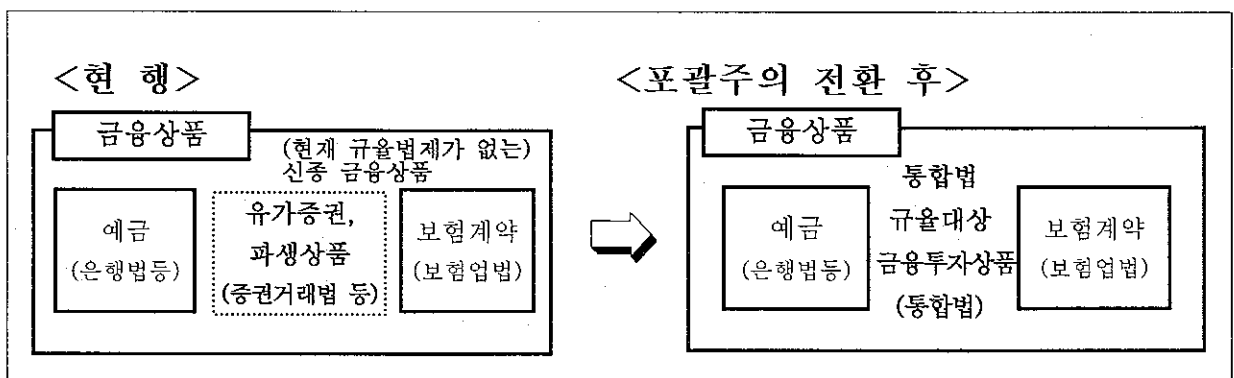
나.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 현 황

- 현행 칸막이식 법령 하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대형금융회사(투자은행:IB) 출현이 불가능
- 또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신종 유가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이 저해

□ 추진계획

- 자본시장에서 영위 가능한 금융업과 취급 가능한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제정('06년 제정 예정)
 -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
 - 금융투자상품의 규율방식을 현행 열거주의(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 * 포괄주의 규율체제(사실상 Negative 형태)하에서는 금융상품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동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허용



⇒ 자본시장 관련 법령이 통합되면 신상품 등장, 금융기법 심화·발전 등 금융혁신이 이루어지고 대형 투자은행의 출현여건이 마련될 것임

다. 외환시장의 선진화

□ 현 황

-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02년)에 따라 잔존 외환규제에 대한 자유화 조치가 단계적으로 진행 중

* (1단계 : '02~'05년) 외환시장 절차적 규제완화

(2단계 : '06~'08년)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등 잔존규제 대폭 축소

(3단계 : '09~'11년) 유사시 안정장치 등 건전성 규제를 제외한 외환 제도의 자유화

< 2005년중 외환자유화 내용 >

- ◆ '05년 동안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자금이체 한도 확대, 일정 규모의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지급증빙서류 제출 부담 경감 조치 등 다수의 외환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

□ 추진계획

-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자본거래를 '06.1월 부터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 외국환거래법 부칙 일몰조항에 자본거래 허가제 유효기간이 금년말 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내년부터 신고제로 자동 전환

- 자본자유화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체계를 강화(시행령 개정 추진 중)

- 추가 자유화 가능 항목*을 검토하는 등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되 건전성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

* 채권회수의무, 자본거래 신고제,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등

라. 금융감독행정 혁신의 지속적 추진

□ 현 황

- 시장친화적·선진적 검사체제 구축 및 전문성·도덕성을 갖춘 금융감독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

- 감독기관의 서비스 의무를 공표하고 자문서비스 제공·의견수렴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조치 시행

- 법규위반여부 불분명시 제재 등 감독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표명하는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제도 도입·운영

* 증권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도입('01.5)되어 운영되던 제도를 전 금융업 분야로 확대('05.7)

□ 추진계획

- 금융 감독당국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외국감독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 각국 금융감독기관과의 양자간 업무협약(MOU) 체결 확대와 국제증권감독기구와의 다자간 MOU 체결 추진

- 금융감독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연수과정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

- 선진 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등에 OJT연수 확대, 금융 전문대학원('06.3월 개교)을 활용한 감독인력교육 등 추진

-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해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

- 외국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계 금융회사 정례간담회, 금융회사 감사 및 준법감시인 워크숍 시 동 제도의 취지를 적극 설명하여 이용도 제고를 유도

마. 금융허브 추진체계의 법적 제도화

- 금융허브 정책이 국가의 중장기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칭)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 ('06년 상반기 국회 상정)
- 금융허브 추진목표는 상당히 장기적인 것으로 법적 제도화 없이는 일관되고 꾸준한 정책추진에 어려움
 - 과제 내용도 다수 부처 관련사항으로 효율적 업무조정이 필수적

□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법(가칭)』 주요내용(안)

- 금융허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금융허브 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금융인프라의 혁신, 금융시장의 발전 기반 조성, 국내·외 금융기관의 상호진출 지원, 다국적 금융기관 및 그 지역 본부의 유치 노력 등
-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의 촉진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등 금융혁신의 촉진, 금융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적용 등에 있어 일관성·투명성·예측가능성 확보 등
- 금융허브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협력의 지원, 금융허브 지원센터 설치, 경영·생활환경의 개선 등

2. 선도금융시장의 효율적 발전기반 구축

가. 자산운용업의 활성화

□ 현 황

- '05년 상반기중 한투('05.3), 대투('05.5) 매각 등 투신사 구조 조정 마무리
-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05.6)을 추진 중
- KIC 설립('05.7월), 퇴직연금제 시행('05.12월) 등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
- 펀드 설정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 펀드 설정액 추이 : 175('02말)→145('03말)→187('04말)→207('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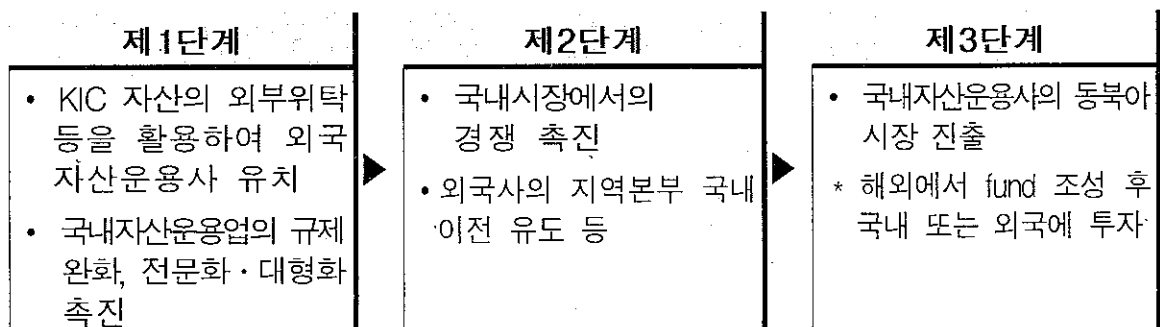
□ 추진계획

-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대형화 촉진, 펀드 운용·영업의 자율성 확대, PEF 활성화 등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
- 연기금, 국민연금 등의 외부위탁비율 확대 지속 추진

	'04말	'05말 추정
연 기 금	10.2% (22/219조원)	11.7% (31/262조원)
국민연금	7.5% (10/133조원)	8.7% (14/158조원)

- 유수의 외국자산운용사를 유치하여 자산운용업 중심의 허브화를 촉진
- KIC를 활용하여 Global 자산운용사의 국내유치를 적극 추진

< 자산운용업 허브의 단계별 구축방안 >



나. 채권시장의 선진화

□ 현 황

- '97년 외환위기 이후 국공채 발행 증가와 정부의 채권시장 육성 노력에 힘입어 채권시장이 크게 성장

	'97말(A)	'04말(B)	B/A(배)
채권상장잔액(조원)	224.1	662.1	3.0
* 국 채	(28.6)	(178.9)	
연간 채권거래량(조원)	143	1,792	12.5

- 다만, 장기채 시장의 발전 미흡, 회사채 시장의 위축, 유통시장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이 존재
- 또한, 외국인의 국내 채권시장 및 원화채권 발행은 저조하여 국제화 정도는 매우 낮음

□ 추진계획

- 장기채 시장 육성과 채권시장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채권시장 활성화방안」('05.11) 추진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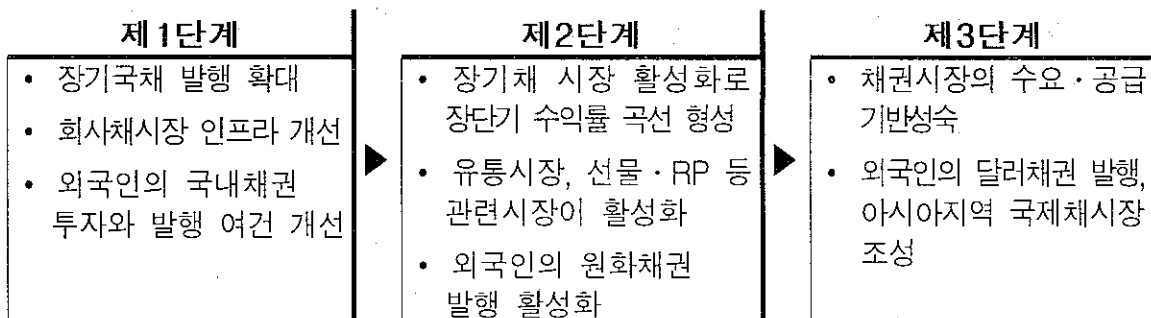
- 10년 초과만기 국고채 발행 등을 통한 장기 지표금리 형성 유도
- 신용평가제도 개선 등 회사채 신용등급의 신뢰성제고
- 채권대차시장 참가자 확대, 소매시스템 구축 등 채권유통시장 활성화 등

- 외국인의 채권 투자와 아리랑본드(원화채권) 발행여건을 개선하여 채권시장의 수요·공급기반을 다변화

- 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정보취득 편의를 위한 채권 정보센터의 구축(증권업협회)

※ 외국인의 채권발행 절차에 대한 국·영문 매뉴얼 작성('05.11)

< 채권시장 국제화의 단계별 추진방안 >



다. 구조조정시장의 활성화

□ 현 황

- 동북아 지역에는 약 1조억불 규모의 잠재적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 중국 3,000억불, 일본 3,300억불 추정
- 우리의 경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부실채권 처리 등 구조조정 관련 제도와 인적자원이 상당히 축적
 - 향후 역내 구조조정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
 - ※ '08년 북경올림픽 이후 중국의 구조조정시장 현재화 가능성에 대비

□ 추진계획

- (제1단계 : 2006년) 역내 구조조정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
 -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 등 국외부실자산 투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06년 상반기)
 - 아시아 지역 구조조정시장 관련 정보 인프라의 구축
 - ※ KAMCO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 구조조정 시장정보 수집 및 DB화 추진 중
- (제2단계 : 2007년 이후) 장차 우리기업과 금융기관이 주변국 구조조정시장에 참여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관련 제도 수출방안을 적극 추진
- 장기적으로 동북아 구조조정 PEF 지원
 - KIC와 연기금 자금 중 일부를 동북아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PEF에 Seed Money로 투자하는 방안 검토

< 구조조정 허브 발전단계 >

단계	대상기업	투자자	구조조정 주체(기구)
1	국내	해외	외국(외국계 PEF)
2	국내	국내	한국(CRC, CRV, CRF)
3	국내	해외	한국(예 : 한국 CRC에 외국인 투자)
4	해외	국내	외국(예 : 한국투자자가 외국기업에 투자하는 외국 PEF에 투자)
▼			
5('07~'08)	해외	국내	한국(예 : 한국 PEF가 한국투자자금으로 외국 기업에 투자)
6('09~'10)	해외	해외	한국(예 : 한국 PEF가 외국투자자금으로 외국 기업에 투자)

라.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

□ 현 황

- 2000년 이후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비약적으로 발전
 - 일부 제도적 미비점이 개선될 경우 역내 주도적 역할 수행이 가능한 분야

파생상품 거래잔액 추이

(단위: 조원)

2001	2002	2003	2004	2005.6월말
302	546	1,025	1,302	1,534
(장내) 57	28	30	35	49
(장외) 245	518	995	1,267	1,485

* 기초자산 : 주식, 이자율, 통화, 신용 등

□ 추진 계획

-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해 신용도 및 결제이행능력에 따라 위탁증거금율을 차등 적용 추진
-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조기정착을 위한 관련 감독규정 정비 ('06.1/4분기)
 - 신용위험 이전 인정기준, 신용공여한도 기준, 자기자본 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마련
- 주식, 채권/금리, 통화, 일반상품을 대상으로 다양한 신상품을 선물시장에 상장 추진

3. 역내 리더십의 구축

가. 외국금융기관 유치 노력 전개

□ 현 황

- 외환위기 이후 외국금융기관들의 국내시장 진출이 크게 증가

※ '04년말 현재 국내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은 총 101개

	외국인 지배주주	50:50합작	지점	계
은행	3	-	37	40
증권	11	-	15	26
보험	7	2	15	24
자산운용	9	2	-	11
계	30	4	67	101

- KIC 출범과 국내 금융시장이 확대 등에 따라 최근 우리 금융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외국 금융기관이 증가

□ 추진계획

- WTO, FTA 등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및 금융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확대될 전망

* Cross-border Supply 확대와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철폐 논의 등

- 우리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충하고 경쟁력 강화와 선진금융기법 도입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

- 국내·외 금융기관간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국금융기관의 한국진출을 촉진

- 금융허브지원팀(fn HUB Korea)*을 통해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지원과 고충 처리를 위한 One-Stop Service를 제공

* '05.12월 출범. 관계부처 공무원, 금감원, 민간금융기관 직원으로 구성

* 외국금융기관 국내 진출시 인·허가 절차관련 매뉴얼 : 별책

- 외국금융기관과의 간담회를 정기(반기 1회)적으로 개최

나. 증권선물거래소의 국제화

□ 현 황

- 그동안 증시의 안정적 성장 등 국내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증권거래소의 국제화에 상대적으로 소홀

※ 주요 증시의 외국기업 상장 비율(외국상장기업/전체상장기업):
뉴욕 19.7%, 런던 11.2%, 싱가포르 16.8%, 홍콩 19.0%, 한국 0%

- 거래소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국기업 상장 유치 및 외국증권거래소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추진 중

□ 추진계획

- 비상장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Primary listing)이 가능하도록 거래소규정 개정 등 상장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우선적으로 제고
- 외국기업의 국내거래소 상장 촉진
 - 우량 중국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 후, 여타 국가 우량기업으로 대상을 확대
- 거래소간 국제적 경쟁에 대비하여 전략적 제휴를 강화
 - 동경증권거래소 및 싱가포르증권거래소와 시장간 연계(co-trading link)를 위한 MOU 체결 추진

자본시장의 국제화 단계

	발행자 (자금수요자)	투자자 (자금공급자)	시장(허브 판단기준)
단계1	국내	국내	국내(내국기업 국내증시 상장)
단계2	국내	해외	해외(내국기업 해외증시 상장)
단계3	해외	국내	해외(내국인 해외증시투자)
단계4	국내	해외	국내(외국인 국내증시투자)
▼			
단계5	해외	국내	국내(외국기업 국내증시상장)
단계6	해외	해외	국내(외국기업이 국내증시에 상장하여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

다. 역내 개도국의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에 적극 참여

□ 현 황

-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IT, 자본시장 제도 등)를 개도국 시장에 먼저 수출함으로써 향후 우리 금융기관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필요
 - 역내 개도국에 우리의 자본시장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자본시장의 연계도가 높아져 역내 금융거래 및 인적교류 활성화 가능
- 역내 개도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인프라 수출은 각 기관별로 추진 중
 - * KOICA 자금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 기관별 자체자금을 통한 기술 지원, ADB 입찰을 통한 용역수출, 아시아채권시장육성(ABMI)을 통한 시스템 수출 등
 - 그러나 각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일회성·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자본 인프라 수출이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

□ 추진계획

-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 및 공동 전략을 마련
- 금융인프라 수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 인프라 수출 대상국의 자본시장 제도 및 시스템 파악을 위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 조사 실시('06년 상·하반기 각 1회)
 - KOICA, KDI의 Knowledge Transfer Program, ADB의 E-Asia Fund*를 통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상호협력 강화 및 수출기반 구축
 - * 우리나라가 개도국 IT 사업 지원 등을 위해 조성(2천만불, 2006년부터 사업 시행)
 - IT 및 자본시장 제도 등의 수출 및 필요시 금융지원*
 - * EDCF 및 수출보험 기금 연계방안, ADB/IDB TA 펀드를 활용한 프로젝트 참여 방안 등

라. 역내 개발금융 활성화

□ 현 황

- 향후 10년간 동북아지역의 SOC 개발수요는 1.2조불 수준 (외자소요: 약 1,100억불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는 등 방대한 시장 기회 예상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동북아개발금융협의체('04.5월), 동북아 ECA협의체('05.5월) 등 개발금융 참여 촉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
- 현재 가스공사 등*이 동부시베리아 및 사할린지역의 가스전 개발사업,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사업 등에 참여 추진
 - * 일반 상업은행은 금리경쟁력 부족, network 부족 등으로 해외PF 참여 저조
 - 수출입은행은 JBIC, EBRD 등과 공동으로 이들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모색 중
 - ※ 산업은행은 동북아 개발금융협의체(NADFC)를 통하여 역내 개발금융 2건(약 2억 달러)을 지원
- 중국 동북 3성을 중심으로 발주되고 있는 발전, 환경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우리기업의 참여 저조

□ 추진계획

- 정부, 금융기관 및 기업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개발사업 정보 공유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성공사례*를 집중 분석하여 향후 국내업체의 PF 진출시 적극 활용
 - * 수출입은행이 지원한 한전의 필리핀 일리한발전소 건설 등
- 우리기업이 수주하거나 자체발굴한 프로젝트* 추진시 금융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
 - * 중국지역 등에서 한전 등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공사는 우리기업이 수주하는 프로젝트
 - 협조용자, 공동투자 방안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상업 금융기관 등의 PF 참여 유도

4. 금융 관련 경영·생활환경 개선

가. 현 황

□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 계획」을 지속 추진중

※ 151개 과제(경영49개, 생활 102개)과제를 선정·추진중이며,
'05년 3/4분기 현재 70개(경영 27개, 생활 43개) 과제 완료

□ 출입국 관리제도

- 외국금융기관 파견자 등에 대한 비자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시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법정 최고기간(2년)**을 부여
- 외국금융기관 파견자 등에 대해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 ('05.9월 시행)
- 외국인의 출국신고서 제출 생략 ('05.11월 시행)

□ 공항의 접근성

- 우리나라는 인접 경쟁도시인 홍콩에 비해 **공항의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많음

< 우리나라와 홍콩간 접근성 비교 >

	우리나라	홍콩
해외로의 접근성	• 중국·일본은 2~3시간내 접근 가능 • 동남아 등 여타 지역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짐	•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으로 3~4시간내 접근 가능
도심 접근성	• 인천공항~도심간 버스로 60~100분 소요 • 인천공항 접근철도 건설중 (09.12월 완공 예정) - 인천공항~서울역간 총 61km - 10개역 40~50분 소요 예정 *1단계(07.3) : 인천공항-김포공항 40km *2단계(09) : 김포공항-서울역 21km • 서울역과 금융가가 직접 연결되지 않음 * 광화문 10분, 여의도·강남 30분 이상 추가 소요, 도보 이동 불가능	• 공항~도심을 고속철도로 연결 (35.3km, 24분 소요) • 공항~도심간 역이 4개뿐. 국제금융센터빌딩 지하로 직접 연결 * 금융가로 직접 연결, 도보 또는 택시로 5~10분 소요 • 모든 역에서 출입국 수속 가능 공항 청이 코룅 홍콩 ← 35.3km, 24분 →

나. 추진계획

- ◆ 금융허브 도시는 최적의 생활환경과 접근성을 갖추므로써 비즈니스 편의성이 극대화되어야 함
- 특히 부족한 해외로의 접근성, 공항의 도심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콩의 예를 벤치마크

□ 경영·생활환경의 개선

-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 계획」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을 조기 추진하고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

□ 공항의 접근성 제고

- **현행 공항 접근철도 계획으로는 1일 비즈니스가 가능한 허브 구축에 다소 부족**

※ 인천공항~서울역까지 40~50분이 소요되며, 강남·여의도의
금융가로 이동하려면 추가로 30분 이상이 소요

- 공항 접근철도와 지하철 9호선(김포공항~여의도~강남)간 직접 연결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

※ 현재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 건교부, 민자사업자 등간에 협의가
진행중 ('06.3월까지 협상 완료 목표로 추진할 필요)



<인천공항 접근철도>
신공항~김포공항 40.3km
김포공항~서울역 20.7km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제일생명 25.5km

□ 법률·회계시장 개방

- WTO DDA 협상과 FTA 협상을 통해 법률·회계 등 금융 서비스와 연관된 전문서비스의 개방을 촉진
- 외국변호사·회계사의 건전한 국내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

	법률서비스	회계서비스
현행 제도	•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국내사무소 설치·국내변호사와의 업무제휴·합작·국내변호사 고용 불허	• 국내 회계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국내사무소 설치·국내회계사와 업무제휴·합작·국내 회계사 고용 불허 * 외국 회계법인은 국내 회계법인과의 회원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내시장에 진출 가능
개방 계획	• WTO/DDA 협상과 FTA 협상에 대응하여 단계적 개방을 추진 • 외국법자문사법(가칭) 제정을 추진	• '07년 이후 외국회계 법인의 국내 사무소 설치 및 외국 회계제도 자문 허용 • 합작·고용 등 추가 개방계획은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추후 마련

□ 노사관계 선진화

-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부응하고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입법*추진('06.2월 입법 예정)

* 복수노조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대체근로 제한 완화, 직권 중재제도 개선 등

5.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 현 황

-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금융전문인력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크게 부족한 실정
- 금융관련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원은 220여개이지만, 이론 교육에 치중하거나 일반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

□ 추진계획

-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의 토대 마련
 - 실무위주 교과과정 개발 및 우수 교원·학생 확보를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의 양성·배출을 위하여 대학원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 싱가포르 정부는 '00년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를 설립하여 중국 및 동남아 등 화교경제권에 금융교육허브로 기능
- 「BK21」과 협조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스펙트럼 강화
-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의 운영을 통해 국가차원의 금융인력 양성·관리 인프라를 체계화
 - 정부, 금융회사, 권역별 연수기관 및 연구소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인력 수급계획, 교육프로그램 개발·관리 및 자격인증 표준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
- ※ 싱가포르는 금융통화청(MAS) 주도로 '01년부터 f-NExT(Financial Network for Excellence in Training)를 설립·운영중
- 금융의 겸업화·국제화 추세에 부합하도록 금융관련 자격증제도의 개선을 추진

6. 금융허브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공감대 확산

- ☐ 금융허브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고 추진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
 - 금융시장 선진화 등 기존 금융허브 추진목표에 대하여 여건변화에 맞게 재검토·조정하는 한편,
 - 단계별로 금융허브 달성의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대내외의 공감대를 확산
- ☐ 대국민 여론조사를 정기적(연1회)으로 실시하여 금융허브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태도 등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
 - * '05.8월 여론조사 결과(수도권 거주 500명 대상)
 - 주거재 금융기관으로 외국금융기관은 곤란(23.4%)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금융개방 필요성(82.2%), 금융허브정책의 타당성(86.2%), 실현가능성(57.2%), “금융허브”라는 명칭(62.2%)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
- ☐ 증권거래소와 협조하여 거래소 개장 50주년을 계기로 KBS1-TV 『일요스페셜』에 금융허브 관련 프로그램 제작 추진('06. 1월)
 - 선진 금융허브 사례를 생동감 있게 보여줌으로써 금융허브 정책 및 자본시장 발전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동 프로그램을 지자체, 각 협회 등에 송부하여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
- ☐ 국회 및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금융허브 세미나 개최 유도('06년 상반기)
 - 금융허브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회의원, 국내·외 금융전문가, 주한 외국금융기관 대표,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 개최를 추진
- ☐ 언론사 등과 공동으로 금융허브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현상논문공모 실시

< 별첨 >

기관별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산업자원부

- 관계부처와 협의, 기발굴된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과제」('04.3월) 151개를 조기에 마무리 추진
 - * 총 151개 과제중 '06년말까지 90개 완료예정(현재는 노동, 조세, 교육, 주거, 교통, 출입국 등 70개 과제 완료)
 - 중장기 과제로 분류된 과제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
- 신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05.12월)
 - APEC 투자환경설명회('05.11.14~17)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조사('06. 1/4분기) 및 신규개선과제 발굴('06. 2/4분기)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애로사항 접수 및 해결
 - 주요기업별 홈닥터(정기방문 및 애로해결)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기존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수시접수 및 해결 촉진
 - Invest Korea의 고충처리팀을 옴부즈만 직속기구로 변경하여 애로발굴과 문제해결 기능을 강화('06. 1/4분기)
- 개선된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금년말에 외국인투자자에게 안내·홍보
 - '05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Invest Korea 홈페이지, PCRM, 책자 등을 통해 소개

담당자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손호영 사무관(전화 : 2110-5115)

보 건 복 지 부

- 국민연금 운용의 외부위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
 - 기금의 위탁운용 비율을 '03년말 3.4%, '04년말 7.5%, '05.10말 9.2%로 확대해 옴
 - 위탁 투자금액 : 3조9,143억원('03년)→10조5,732억원('04년)→14조4,322억원('05.10월말)
 - 위탁운용사 : 총 80개사에 위탁('05.10월말 현재)
- 기금의 위탁운용 비율은 자산배분, 자산별 특성, 운용업계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투자위험이 높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해외주식과 벤처, CRC, PEF 등 대체투자는 100% 위탁운용
 - 국내주식,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은 직접·위탁운용을 병행하여 투자
 - '06년 “연간자금운용계획”에서 자산군별 위탁운용 금액을 확정할 계획('05.12월말)
-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기능 확대
 - 의결권 행사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행사내역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투명하게 운영
 - “주주권행사위원회(가칭)”를 설치, M&A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 '05년 기금운용위에서 확정할 예정인 “의결권 행사기준”을 매년 검토하여 수정·보완

담당자 : 보건복지부 연금재정팀 최홍석 사무관(전화 : 2110-6408)

노 동 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05. 1. 27)으로 시행되는 퇴직 연금제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 시행령·시행규칙,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 제정 완료

-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개별 사업장의 노사합의 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에서 선택하여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예정
 -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 연금제도 신규 적용(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
- 퇴직연금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득세제·법인세제 개편 추진 중
 - 일시금 과세강화, 연금과세 완화(소득세제), 퇴직충당금 손비 인정 범위 축소(법인세제), 근로자 추가 각출분 소득 공제 등
- 퇴직연금 설명책자·리플렛 배포, 민간·공공부문 노사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공감대 확산 중

□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부응하고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03. 5. 10 구성)가 보고한 “노사 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을 노사정위원회 회부
- 동 보고 내용에 관한 논의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시한('03. 9. 4~'05. 9. 3)종료로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정부에 이송
-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입법추진('06. 2 입법예정)을 지속 하면서 노사정 대화 등을 통하여 노사의 의견수렴 예정

담당자 : 노동부 제정기획관실 최현석 사무관(전화 : 503-9705)

건설교통부

□ 공항의 도심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편 확충에 주력

- 2010년 개통을 목표로 한 「인천국제공항 철도」(인천국제공항 ~ 서울역간 복선전철) 건설(61.0km)
- 사업기간 : 2001. 3 ~ 2009.12
 - 1단계(인천공항 ~ 김포공항 : 40.3km) : 2001. 3 ~ 2007. 3
 - 2단계(김포공항 ~ 서울역 : 20.7km) : 2004. 1 ~ 2009. 12
- 총투자비 : 4조 995억원(민간 30,110억원, 정부 10,885억원)
- 사업추진 방식: BTO(Build-Transfer-Operation)방식, 2단계 준공 후 30년간 민간 운영

□ 향후 개통 일정

- 1단계 구간 시운전 완료 및 개통 : '07. 3월
- 2단계 구간 시운전 완료 및 개통 : '10. 1월

□ 기대효과 : 인천국제공항 접근교통수단의 적기 확보

- 일반열차(10개역 모두 정차) : 50분 (1단계 33분)
- 직통열차(시종착역, 김포공항역 정차) : 40분 (1단계 27분)

담당자 : 건설교통부 민자사업팀 이인식 사무관(전화 : 2110-8383)

기 획 예 산 처

☐ 급증하는 연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위탁 비율 확대

- 연기금 외부위탁비율 : (04년말) 10.2%(22.3/219.2조원)→('05년말 추정) 11.7%(30.6/261.7조원)
- 각 기금 자산운용지침에 외부위탁 관련 정책 및 기준이 명시 되도록 유도
- 기금의 투자 다변화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의 주식·부동산 투자 원칙적 금지조항을 삭제('05.1월)

☐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기능 확대

-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토록 함('05.1월)
 - 주식보유가 예상되는 기금도 자산운용지침에 주식 의결권행사 원칙과 행사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유도
- 주주권 행사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 및 공시의무 등이 준수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 연기금 자산운용 수준 제고

- 기금별 특성에 따른 평가 및 포상제도 개선 추진
- 기금 자산운용관련 예산지원 확대('05) 116→('06) 136억원(17.2% 증)

담당자 : 기획예산처 자산운용팀 이성원 사무관(전화 : 3480-7871)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 서비스 중심 감독업무 체제 확립

- '05. 7월 도입된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감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주요 내용

- 정책적 판단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합동간담회 논의를 거쳐 금감위원장이 회신하고 해당사안에 대해 확정적으로 제재조치 면제
- 단순한 규정해석사항은 실무부서장이 직접 회신하고, 금감위(증선위)·금감원장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않음을 명시

□ 시장 친화적 검사업무 실시

- 전담검사역(RM) 제도 도입, 검사계획 사전통보 등을 통해 상시감시를 강화하면서도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

□ 금융감독기관의 역량 강화

- 금융감독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선진 금융감독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등에 OJT연수 확대, 「금융전문대학원」 파견 등 국내·외 연수과정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
- 금융의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감독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강화
 - 양자간 업무협약(MOU) 체결 확대 및 IOSCO와의 다자간 MOU 체결 추진 등

담당자 :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 김홍식 사무관(전화 : 3771-5207)

서울특별시

□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건립 추진

- 서울시내에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여 금융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사업

○ 서울국제금융센터 개요

- 위 치 : 서울시 여의도
- 규 모 : 연면적 약 15만평(부지 약 1만평)
- 시 설 : 최첨단 오피스, 호텔·컨벤션, 상가 등
- 기 능 : 국제금융기관·기구, 다국적 기업 등 유치
- 개발방식 : 서울시는 토지임대, AIG는 개발 및 건축비 조달
- 사 업 비 : 약 1조원(AIG 전액조달)
- 사업기간 : 2003~2010년

○ 추진현황

- '03.6 양해각서(MOU) 체결
- '04.6 기본협력계약 체결
- '05.8 개별임대계약(본계약) 체결
- '05.10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직제에 금융투자관(국장급) 등 신설

○ 향후계획

- '06.2 프로젝트 총괄계약 체결
- '06.3 건축 착공
- 2010년 완공 및 운영개시

담당자 : 서울시 금융도시담당관실 홍성우씨(전화 : 6321-4457)

한국산업은행

□ 동북아지역 개발사업에 우리 금융기관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역내 개발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

○ 동북아지역 개발에 관련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검토 및
금융기관간 컨소시엄의 단계별 모색

- 우선적으로 정보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협력기반을 조성한 후
포괄적 MOU 체결 및 사업별 협력관계 구축

- 한중일 동북아개발금융협의체(NADFC) 및 주요은행과의 네트
워크 활용을 통한 SOC 사업발굴 및 지원

* NADFC 설립이후 '05.11월까지 192만달러(2건) 지원, 향후 지원규모 확대 예정

□ 동북아지역의 선박금융 지원 확대

○ 다양한 방식의 선박금융을 통한 국내외 해운사의 선박구매자금
및 재금융에 대한 지원 강화

○ 비거주자 선박금융시장에의 적극적 진출

□ 추가 특화 금융수요 개발

○ 중국 동북3성 등 지역의 구조조정, 개발금융을 지역특화 금융
수요로 적극적으로 연계 발굴

- 동북3성 지역의 산업 및 노후공업기지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
강화

- 동북3성 사회과학원과의 상호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한 대
규모 투자사업, M&A 등 금융지원 가능분야 발굴 및 지원

담당자 : 한국산업은행 박 석 부부장(전화 : 787-7842)

증권선물거래소

-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유치 및 외국증권거래소와의 연계를 추진
 - 1차적으로 우량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성과가 가시화 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증시의 외국기업 상장·관리 능력 제고 후 여타 국가 기업으로 유치대상 확대
- Asia Market Data Hub 구축을 통하여 시장간 연계강화 및 수익 제고 도모
 - 우리나라가 주도가 되어 권역내 시장정보 분배시스템의 단일화·표준화 추진
- 증권선물거래소 IT자산의 국제적 수출 추진
 - 체제전환국 등 자본시장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개도국 거래소에 대한 기술자문 제공 등을 통하여 협력관계 구축
 - 주식·채권·파생상품 매매체결시스템 등 증권선물거래소의 IT 시스템, 주가지수, 매매제도 등 자본인프라의 수출 추진

담당자 : 증권선물거래소 이돈창 과장(전화 : 051-662-2063)

한국수출입은행

□ '05년도에 결성된 한·중·일 수출입은행간 “동북아 ECA 협의회*”를 역내 금융지원 및 정보교환의 구심체로 활용

* '05.5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 개최, 내년 이후 정기 연례회의 개최 합의

- 역내 프로젝트 공동 진출시 협조융자 등을 통하여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수출금융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 조율
- 실무협의회, 연수프로그램, 연례회의 등을 통하여 역내 ECA 협력 지속적 강화 예정
 - 베트남 수출입은행 설립지원('06년 상반기 설립 계획)
 - 제12차 아시아 ECA 연례회의 참석 예정('06년.10월경)

□ 동북아 개발금융 협력 적극 추진

- 동북아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역내 수출입은행·상업 금융기관등과 협조 융자 추진

□ 국내 해운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의 선박금융 지원 확대

- 수출선에 대하여 맞춤형 선박금융을 지원하고 국내 해운사의 선박발주계획에 따라 외항선박 구매자금을 지속 지원

※ '05년 맞춤형 선박금융 12.9억불, 외항선박 구매자금 1.4억불 지원 예상

- 보증·대출 연계를 통하여 선박금융 관련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고부가가치선인 LNG선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체제 구축
- 동북아지역 국가의 선박투자회사가 국내조선소에 선박 발주 시 금융지원을 하는 등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강화

담당자 : 수출입은행 김용몽 부부장(전화 : 3779-6268)

한국투자공사

☐ 자산운용시장과 산업의 적극적인 확충

- Global 자산운용사 유치
 - 우수기관의 지역본부, 현지법인, 지점 개설 촉진
 - 국내사와의 합작회사(J.V.) 설립 지원
-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업무제휴(MOU) 추진
- KIC의 자산운용 과정에서 금융허브 추진전략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금융허브의 Brand Reputation 제고

-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결성
 - KIC의 자산운용 전략과 금융허브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금융 Leader들로 모임을 결성하여 국제자산운용 업계에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
- 한국 금융허브 사업 관련 국제 금융계의 여론 수렴 및 적극적인 홍보 수행

☐ 해외 우수기관의 영업확대 지원

- 외국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영업확충을 저해하는 규제 내용을 도출하여 정책당국과의 협의채널 역할 수행
- 국내 금융기관의 외국 금융기관과의 협업 기회 지원

☐ 금융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Hub기능 수행

- 국내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결성 지원
- 투자관리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해외 OJT연수 확대

담당자 : 한국투자공사 서병기 부장(전화 : 2179-1050)

한국자산관리공사

- 아시아지역 구조조정시장 현황 및 제도 관련 정보수집·분석 및 DB화
 -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몽골 등 아시아지역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 국내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적극 추진하며,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한 고급 시장정보의 실시간 입수·활용에 주력
- 시범적 투자사업 실시 및 해외구조조정투자업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 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한 공사 업무방법서 및 내규 등 국외부실자산투자 관련 법제도 정비작업을 완료할 예정
 - 향후 시범적 국외부실자산 투자사업의 실시를 통해 제도상의 미비점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
- KAMCO가 보유한 부실채권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에 구조조정 관련 제도 수출
 - '05년 중 베트남, 터키에서 각각 1건의 부실채권 정리 및 구조조정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내년에도 아시아국가에 대한 컨설팅 지속추진
- 구조조정 해외네트워크 구축, 부실채권정리기구 직원연수, 부실채권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관련 컨설팅 수행
 - '05년 중 총 4건의 해외 직원연수를 실시하여 한국의 구조조정기법 등을 전수했고 '06년에도 4회의 해외기관 연수실시 예정

담당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정환영 팀장(전화 : 2103-7017)

예금보험공사

☐ International Open House 개최를 통한 금융허브 홍보

- 일시 및 장소 : '06.5월중(예정), 서울
- 주요내용 : 공사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 및 구조조정 노하우 등을 각국에 널리 홍보

☐ 국제예금보험기구(IADI)내 활동 강화

- 국제예금보험기구 이사회 회원, 조사연구위원회의 부의장,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모범사례 작성 소위원회 의장으로서의 활동 강화
 - 모범사례 작성과 관련한 견본(Template sample)을 작성하여 조사연구위원회에 보고
 -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각국의 연구활동의 조정 및 협의, 국가별 주제선정 등 다양한 활동 계획

☐ 우리의 선진 예금보험제도를 해외에 수출

-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 및 예금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한 노하우 등을 태국,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 전수

☐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한 백서 편찬

- 11월말 현재 '05.4월까지 발생한 사례를 정리 하였으며 '06.5월 발간을 목표로 추진중

담당자 : 예금보험공사 장태욱 차장(전화 : 758-1124)

증권예탁결제원

- 아시아 역내채권시장의 예탁·결제를 전담할 국제예탁결제기관(ICSD) 설립시 주도적 역할수행 기반 마련
 - 국제세미나 등에서 아시아 역내예탁결제기구의 설립·운영 방안이 제안된 후 ADB는 긍정적 입장 표시
 - 증권예탁결제원은 아시아 역내예탁결제기구 설립 관련 추진방안 수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
-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내 예탁결제 인프라 수출(중앙예탁기관의 고유업무 및 증권대차, Repo 등에 관한 컨설팅, IT 인프라 수출)
 -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상 컨설팅 및 초청연수 등을 토대로 사업내용을 전문화하고 수요조사를 통한 신규 진출 부문을 파악할 예정
- 제9차 세계중앙예탁기관회의(CSD9) 개최 예정
 - 일시 및 장소 : '07년 4월 11일~13일, 서울 신라호텔
 - 동회의 세부 주제 및 행사 프로그램(동북아금융허브 추진 관련 세미나 또는 특별세션 기획 포함) 선정
 - 참가자 확대(80개국 연인원 1,000명 예상)를 위한 홍보 및 지원 계획 수립

담당자 : 증권예탁결제원 박영호 부장(전화 : 031-900-7120)

전국은행연합회

□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우리 금융기관의 국제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중계기관 시스템** 구축

-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06. 1. 18일부터 5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 금융기관*의 고액현금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효율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중계기관 시스템 구축 예정

* 은행(19개),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리스크관리기법 강화를 위한 **운영리스크 손실자료 공유**

- 신BIS협약 도입·시행(2007년말)과 관련하여 운영리스크 고급 측정법(AMA)을 채택한 은행의 경우 과거에 발생한 내부손실자료(Internal Loss Data) 활용 필요
- 내부손실자료의 통계 유의수준 제고를 위해 은행간 손실자료 공유(Pooling) 및 가공 추진
- (가칭)한국운영리스크손실자료공유위원회(KOREC ; Korea Operational Riskdata Exchange Committee) 설치 예정

□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일반 금융소비자 대상 금융교육 강화**

- 신용정보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중점 개발하여 필요시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 지원

- 금융전문대학원 및 금융전문인력 네트워크센터 설립시 은행업권 적극 참여 유도 등

담당자 : 전국은행연합회 조억연 부장(전화 : 3705-5240)

한국증권업협회

- 현재 채권시장은 다양한 시장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관리됨에 따라 채권투자자, 특히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시장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

※ 현재 장외채권시장은 한국증권업협회가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외채권정보가 집중되어 있음

- 증권업협회가 채권시장전망지표 및 채권시장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집중시켜 채권정보센터를 구축(2006년)
 - 채권정보센터는 한글자료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한국채권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문자료 제공 시스템 개발도 병행하여 추진
 - 이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채권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투자촉진의 계기로 삼고자 함

담당자 : 증권업협회 차상기 팀장(전화 : 2003-9201)

자산운용협회

- ☐ 간접투자증권 판매채널을 확대·정비하기 위하여 각 국의 입법사례 조사 및 정책화 추진
 - 판매가능 금융회사의 범위 확대, 독립판매인의 펀드판매 허용, 펀드판매전문중개회사 설립 허용 등 검토
 - 판매전문인력 등록제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과 판매질서 건전화 위한 자율규제방안 검토
- ☐ 별도의 투자자교육기금을 조성하여 투자자교육 및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임직원 교육의 충실화 도모
 - 현재 투신안정기금의 투자자교육기금 전환을 위한 조합사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06년 투자자교육기금 사업계획 작성 중
 - 향후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투자자교육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타기관의 투자자교육사업과 연계 등을 추진
- ☐ 운용수익률이 좋은 국내펀드 등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관심 증가 등을 이용하여 국내펀드의 해외 판매 활성화
 - 향후 해외 각국의 입법사례를 조사, 법률 등 제도정비 필요사항 검토, 국외투자자 모집을 위한 활동 예정

담당자 : 자산운용협회 서종균 팀장(전화 : 2122-0123)

생명보험협회

☐ 생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교류확대를 위해 국제회의의 참가 및 국제세미나 개최

- 국제보험회의, 동아시아보험회의, OECD보험위원회, 아시아태평양리스크관리학회, 국제보험감독자기구 등 국제회의의 참가
- 생명보험 선진 경영전략 등을 주제로 생보사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보험전문가 초청 국제세미나」 개최 예정('06년 1/4분기, 서울)
- 보험경영전략 등에 대한 정보교환, 해외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보험 유관기관과의 교류 확대

☐ 국제보험회계기준 변경 추진 관련 대응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보험회계기준 변경 추진에 대응하여 국내 보험업 회계처리 준칙 등의 개선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금융전문인력 양성 추진 지원 및 대 국민 홍보 지원 등

-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시 보험업계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생보사별 자체 인력개발, 직원교육 프로그램 강화 유도
- 소비자 상담, 생명보험 강좌 시 금융허브 정책 홍보

담당자 : 생명보험협회 김재훈 부장(전화 : 2262-6655)

손해보험협회

☐ 국내 보험산업의 국제화를 적극 지원

- 국제 보험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국내 손보사들의 해외시장진출 및 외국보험사들의 국내 시장진입 등에 대한 기반 마련
- 해외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 물건에 대한 보험수요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보험사의 중국 등 아시아보험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

*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60%이상이 아시아에 집중

☐ 남북간 보험교류 확대

- 개성공업지구 보험진출을 계기로 북한 전역으로 남한 보험 사업 진출을 확대

☐ 보험전문인력 양성 및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시 보험업계의 적극적 참여 유도
- 보험회사를 통한 소비자 홍보 강화 및 청소년 보험교육 강화

담당자 :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팀장(전화 : 3702-8531)

한국선물협회

- ☐ 파생상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보완 및 확대 운영
 - 상장(예정) 상품 교육, 전문화를 위한 직무교육, 파생상품 전문가 양성과정의 개편, 금융전문대학원 등에 참여 및 지원
 - 금리, 통화 등 거래소 상장상품에 대한 교육시간 확대 및 향후 상장될 선물상품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커리큘럼 운영
- ☐ 주식, 채권/금리, 통화, 일반상품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새로운 선물상품의 연구개발 및 상장지원
 - 국내외 관련업체 및 종사자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조사·분석하며, 상장가능성 확인 시 관련 상품의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 ☐ 우리 선물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확대
 - 해외 유관기관과의 양해각서(MOU)체결을 통해 인적교류 확대, 상시 정보교환 채널 구축,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 미국, 중국 선물협회와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향후 일본 및 동남아 국가들로 이를 확대 추진할 예정

담당자 : 한국선물협회 박철호 팀장(전화 : 783-4670)